

# 당뇨병관련 기자재 및 의료용구의 보험 등재의 필요성 (I)

심강희 / 삼성서울병원 당뇨병 전문간호사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1970년대에는 1% 미만이었으나 현재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30년도에는 722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제 1형 당뇨병의 경우 대한당뇨병학회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5세 미만인 환자수를 조사한 결과 인구 10만명 당 평균 1.36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원인으로 당뇨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뒤를 이어 4위로 나타났으며, 당뇨병환자들의 사망원인 중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대혈관 질환이 약 7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사망률 1위의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77년 7월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단위로 출발하여 1989년 7월, 도시지역의 자영자를 포

함한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보험적용 대상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의료보험의 수가, 보상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치료 중심적 의료서비스와 제한적 보험급여 범위로의 예방중심의 국민보건정책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은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가계의 의료비부담이 높고,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의료보험제도에 있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에 대한 포괄적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에 당뇨병관련 의료용품, 특히, 인슐린 주사용품, 자가혈당 측정용품은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용품으로 이에 대응하는 의료보험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자가혈당측정 용품의 보험적용 권

자가혈당측정 용품의 보험적용의 필요성  
DCCT(당뇨병 조절과 합병증 연구) 연구나, UKPDS(영국전향적당뇨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철저한 혈당조절이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위험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거나 발생한 합병증의 진행이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혈당조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당뇨병환자의 혈당은 변하고, 생활습관에 따라 일간의 변동(day to day variation)이 크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혈당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혈당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자가혈당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가혈당측정기의 보급으로 당뇨병환자는 자가혈당 측정법에 대한 체계적인 당뇨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서 혈당검사를 통해 저혈당 및 고혈당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혈당조절 목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병,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슐린 또는 약의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식사량, 식사구성 그리고 특정 음식에 따른 혈당의 영향, 운동의 효과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당뇨병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가혈당측정은 당뇨병관리에 있어 지도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제공하지만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혈당측정기, 시험지(strip), 채혈기, 채혈침 등을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이 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가혈당측정에 대한 보험 급여가 이루어져 당뇨병환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가혈당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당뇨병관리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 가. 자가혈당측정 빈도 권고안

2005 년 International Diabetes Center Global Consensus Meeting on SMBG Monitoring

구분	국제당뇨병센터 권고하는 빈도
다회 인슐린 주사 / 인슐린 펌프	혈당조절 목표범위에 도달했거나 높아도 적어도 하루에 3회 한다.
혈당조절 목표범위보다 높은 경우 - 병합요법(경구약 + 인슐린) - 인슐린 주사 시 - 경구약 복용 시	최소한 1일 2회 검사한다. 식전, 식후 혈당을 쌍으로, 검사 시간대를 달리하여 검사한다.
혈당조절 목표범위에 도달한 경우 - 경구약 복용 시 - 인슐린 주사 시	최소한 1일 1회 검사하며, 주 1회 혈당패턴을 검사한다.
혈당조절 목표범위에 도달한 경우 - 병합요법(경구약 + 인슐린)	최소한 1일 1회 검사하며, 자주 혈당패턴을 검사한다.
약물요법을 하지 않는 환자 혈당조절 목표범위에 도달하였거나 또는 높은 경우	최소한 주 1회 혈당 패턴을 검사한다. 단, 과식, 스트레스, 운동부족 시에는 식사, 운동 등의 지침제공을 위해 검사한다.

### 미국 당뇨병학회 혈당검사 권고안

제 1형 당뇨병	≥ 3회/일
제 2형 당뇨병 + insulin	매일
제 2형 당뇨병 + OHA	매일
제 2형 당뇨병 + 식사요법과 생활습관	권고안 없음

### 자가혈당측정 용품 보험적용 외국사례

#### ① 미국

자가혈당측정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보험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의 88%가 자가혈당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00%가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인슐린 사용자부터 보험적용이 시작되어, 1998년부터 인슐린 비사용자에게도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 ㄱ. 보험적용 항목

- 혈당측정기
- 혈당측정 시험지(Strip)
- 채혈기와 채혈침
- 포도당 대조용액(기계 및 시험지 점검용)
- 당뇨병 관리 교육

#### ㄴ. 보험적용 내역

- 인슐린 사용자  
매달 100개의 시험지와 채혈침이 지원되며, 매 6개월마다 채혈기를 교환할 수 있다.
- 인슐린 비사용자  
3개월마다 100개의 시험지와 채혈침이 지원되며, 매 6개월마다 채혈기를 교환할 수 있다. 이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시험지 및 채혈침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36%만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의료보험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56%가 개인보험(사보험)으로 보험적용을 받고 있다.

#### ② 영국

자가혈당 측정기 사용자의 100%가 자가혈당 측정기 시험지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 보험에서 지원을 받는다. 시험지 수량 등 보험 지원 내역은 전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맡긴다.

#### ③ 프랑스

- 인슐린 사용자  
혈당측정기와 시험지, 관련물품을 100% 지원하며, 필요한 수량의 제한은 없다.
- 인슐린 비사용자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혈당측정기와, 시험지, 관련물품을 100%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시험지만을 65% 범위에서 지원한다.

#### ④ 독일

- 인슐린 사용자  
자가혈당측정 환자의 90%가 보험혜택을 받고 있으며, 혈당측정기는 무료로 제공된다.
- 인슐린 사용자  
인슐린 사용자의 95%가 시험지를 지원받으며, 수량은 치료방법, 보험,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 달에 30~200개 범위에서 정해진다.
- 인슐린 비사용자  
인슐린 비사용자의 경우에는 20%만이 시험지를 보험적용 받으며, 치료방법, 보험회사, 지역

등에 따라 다르며 한 달에 0~40개 범위에서 지원한다.

⑤ 이탈리아

자가혈당측정기 환자 중 50%가 보험적용을 받으며, 인슐린 사용자를 위주로 지원된다. 인슐린 비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수만이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지원수량은 한 달에 12~90개, 일년에 144~1,080개 정도 이내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⑥ 일본

혈당측정 시험지가 보험이 적용되나, 의사의 진료비에 같이 청구된다.

⑦ 중국

자가혈당 측정에 따른 의료비는 개인보험(사보험)에서만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자가혈당측정기 사용자의 10%정도가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⑧ 캐나다

자가혈당측정 환자 중 83%가 보험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중 48%가 공공 의료보험, 36%가 개인보험으로 지원된다. 시험지 수량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자가혈당 측정용품의 보험적용 건**

① 자가혈당측정 용품의 구입

- 보험적용 : 100% 본인부담이며, 보험적용이 안 된다.
- 구입조건 : 처방전 필요없고, 구입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보험적용에 근거가

준이 없다.

- 구입처 : 약국, 의료기상, 인터넷
- 구매가격 : 기준가격이 없고, 제품의 가격이 다양하다.
- 문제점 :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제품의 질 보장이 안 되어 있다.

자가혈당측정 용품의 가격

종류	가격
혈당측정기	. 수입품, 국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5만원~20만원대로 가격차가 크며, 구입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시험지	. 수입품, 국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개당 400~600원으로 가격차가 있으며, 구입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채혈침	. 수입품, 국산 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질과 가격이 다르며, 개당 100원~200원으로 가격이 다르며, 구입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사례 1 : 하루에 1회 인슐린 주사를 맞는 제 2형 당뇨병환자가 혈당조절이 목표범위보다 높았을 경우 1달 동안 혈당검사를 했을 때 사용되는 의료비는?

\*자가혈당측정시 총 비용: 21,000원

- 혈당검사 빈도 권고안(ADA 기준) :

1일 1회

- 500원(시험지 개당 가격) × 30개(월 소모량) = 15,000원

- 200원(채혈침 개당 가격) × 30개(월 소모량) = 6,000원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